

## 조선후기 차문화 살피는 중요 자료

### '동다기' 추정 '기다(記茶)' 영인본 공개 계간 <문헌과 해석> 2006년 가을호에



지난 11월 2일, 한양대 정민 교수가 공개한 다서(茶書) <기다(記茶)>의 전문이 계간 <문헌과 해석> 2006년 가을호에 공개됐다. <기다>는 그간 다산 정약용이 쓴 것으로 알려진 다서 <동다기(東茶記)>로 추정되고 있는 사료로, 저자는 조선시대 무신이자 작가인 이덕리(李德履, 1728~?)이다. 18세기 후반의 저술인 <기다>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차문화상을 짚어본다.

<기다>는 정민 교수가 지난 9월 강진 지역을 답사하다 다산 정약용의 강진 시절 막내 제자인 자이당(自怡堂) 이시현(1803~1860)의 거쳐 백운동 원림을 방문해 발견한 자료다. 이시현의 5대손인 이호천씨가 보관하고 있던 <강심(江心)>이란 제목의 각종 시문 필사본 묶음집에 <기다(記茶)> 등과 함께 실려 있었던 것이다. 10쪽 분량의 <기다>는 다섯 단락으로 된 '서설(序說)'과 15개 항목으로 이뤄진 '본문(本文)' 그리고 7항목으로 구성된 '다조(茶條)'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 "궁중 다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2006 국제차문화학술회의에서 다산 정약용의 원림이 주최하고 명문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주관한 '2006 국제차문화학술회의'가 12월 5일 서울 국회현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1세기 한국 차 문화 부흥운동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명호근 수석부회장과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 조유행 하동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중·일을 대표해 이승원 아시아스키연맹 회장이 '한국 차문화 부흥운동의 역사와 현대적 가치'를, 구단 중국 국제차문화연구원 이사장 '한중의 물은 영

화를 다시 한 번 주목받게 했다. 초의선사는 <다신전>과 <동다송>을 지었고, 정약용은 제자들과 함께 '다신계(茶信契)'를 조직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지어진 이덕리의 <기다>는 당시의 차문화를 살피는 중요한 사료다. 서설에서는 차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나라 차의 산지는 영남과 호남 지방에 산재해 있다"고 적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차의 주산지인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차의 음용은 그리 일상화되어 있

### 차 수출 통한 국익 창출 인식 널리 퍼져 수입 차를 모두 '황차'로 부른 기록 눈길 무역 방법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술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덕리는 "우리나라의 차는 작설차로 약용에 쓸 뿐 마실 줄은 모른다" "차가 그리 긴요한 물건이 아니어서 차를 만들어 마실 줄은 몰랐다"고 한다. 이덕리는 중국이 차를 부국(富國)의 기틀로 삼고 있음을 보고 '다설(茶說)' 즉 '기다(記茶)'를 지어 당국자들이 차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차 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그 차를 중국에 수출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이를 국방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다>를 필사한 이시현의 스승인 다산 정약용 역시 <경세유요>에서 차 무역을 통한 국익 창출을 주장했던 것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차가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당시의 제법법과 차의 효능에

관한 서술하고 있다. 이덕리는 당시 차를 곡우 전에 따는 '우전차(雨前茶)'와 곡우 후에 따는 '우후차'로 나누고 있다. 또한 차는 달여서 고약처럼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차의 효능에 대해서는 '감기와 식체, 이질 설사, 열병 등에 효과가 있다' '잠을 적게 한다' 등으로 기록해 18세기에는 차가 감기나 이질 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음을 보여 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황차(黃茶)'에 대한 기록이다. <기다>에는 '수입된 차는 모두 황차라 불렀다' '표류해 온 중국인이 아차(兒茶)를 황차라 불렀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차무역 역사가 우리나라에 오가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잦았음을 알 수 있다. '다조(茶條)' 부분에서는 차 무역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덕리는 비변사(備邊司)에서 영·호남에 공문을 보내 차나무 유무를 보고하게 하고, 사람을 가려 뽑아 차 산지로 보내 직접 차를 따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들어진 차는 서북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차 따는 일에 고용된 백성들은 돈을 벌어서 좋고, 국가는 차를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ky@buddhapia.com



### 19. 원대(元代)의 차(茶)

대 초원(草原)을 누비며 양을 치고 말을 타던 몽골인은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라를 세웠다. 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은 수도를 몽골고원에서 연경(지금의 북경)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元, 1271~1368)이라 하였다. 원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회를 구성하여 4단계로 민족을 구분해 몽골인들만이 귀족 지배층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외에 색목인(色目人), 한인(漢人), 남인(南人)들로 나누어져 신분 차이를 나타내며 차별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송 문화와 비교하여 낮은 문화수준의 몽골인들은 다른 민족의 종교·풍습에는 관용적이었지만, 다른 민족의 문화·사상과는 서로 충돌되는

### 정교하고 번잡한 다예 형식 벗어나 간소화 단차 중심 음차문화 산차(散茶) 시대로 변화

면이 있었다. 특히 한인과 남인들은 몽골인들의 멸시 속에서 더 이상 고상한 취미나 풍류를 표현할 의지를 잃었다. 송나라 문인들은 송나라 문인들이 차(茶)를 통해 자기의 이상과 절개를 표현했고 그들의 뜻을 연마(研磨)했다. 즉 몽골 귀족의 압박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차로 풀었다. 거칠고 호탕한 성품의 몽골인들은 차를 생명처럼 여기고 좋아했지만, 차를 끓이고, 풍평하고, 고상한 정취를 즐기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원대에는 여러 형태의 음차(飲茶) 문화가 성행하게 된다.



원(元)대 풍도(風土)의 벽화, 동자(童子)의 차(茶) (童子奉茶圖).

송대 유행했던 단차(團茶)는 여전히 보존되었지만 수량이 크게 줄어들어 궁정에서만 마셨다. 투차(投茶)법을 보전하는 정도의 비교적 쉽고 간단한 형태의 말차(抹茶)를 만드는 방법만이 유지된다. 당시에는 차에 호두·잣·깨·은행·밤 등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했다. 호북과 호남 등에서는 청두(靑豆)를, 북방에서는 대추를 넣어 마셨다. 이렇게 먹는 방법은 차의 정미(精味)는 잃었으나 민간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문인들도 즐겨 마셨다. 이러한 음차법은 북방민

족에게뿐 아니라 송나라 사람들도 계도 인기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원대 모차(毛茶)의 유행이다. 호두와 잣을 찧가루와 합하여 돌 같은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 손님이 오면 차에 이것을 넣어 마시는 형태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차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산차(散茶)의 출현이다. 오늘날 차를 우려 마시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당시에는 연한 찻잎을 따고 꽃대(淸氣)를 제거한 후에 차를 끓여 마셨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민간의 음차에서 나타난 것이다. 음차 방법의 간소화에 따라 차 문화는 두 종류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차를 마시는 것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과

결합했다. 다른 하나는 자연으로 돌아가 차와 자신을 자연 속에 융화하여 도가의 자연합일(自然合一) 사상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다도 사상은 조원이 그린 <육우 품차도(陸羽 品茶圖)>로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다산(茶仙)인 육우를 그려 원대 차인(茶人)의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속에 먼 산과 가까운 물·고목·초가집이 완전하게 어울린 세계를 구성하여 소박(素朴)한 신선의 경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은 원대 차인들이 비록 역경에 처해 있지만 기술 속에는 원대한 품격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원대 차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송대에 번창했던 정교하고 번잡한 다예(茶藝)의 형식을 벗어나 간소화되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전통적 차문화 형식은 쇠락하고 사상도 없어지는 듯 했지만, 차는 각 계층 사람들에게 깊이 침투해 새로운 문화로 발전했다. 당(唐)이래 단차 중심의 음차문화가 명대의 완전한 산차(散茶) 시대로 변화하는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 CLEAR MIND

맑은 마음 밝은 세상

수행이 살아있는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알리고자 힘쓰는 포교매거진 Vol.9 11,12 2006

특집 | 붓대를 향한 그리움, 그것을 우리는 불교예술이라 부른다

숨이 턱 막힐 듯한 세계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종교적 신념의 소산물이다. 인간의 애증과 희로애락을 넘어서고 철학과 사상까지도 넘어선 종교는 인류의 가장 차원 높은 정신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예술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예술도 다르지 않다. 보다 깊은 영혼의 울림을 감구하는 예술가들은 불교를 통해 그들의 작품에 피를 들게 하고, 관념 속의 불교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옷을 입는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불어의 경지를 깨달아 작품 안에 수준 높은 예술혼을 불어넣는 무용가, 음악가, 미술가들은 어떤 영감을 지니고 있을까.

TEACHING 월암스님 Ven.Wolam Sunim | 안심입명(安心立命)

TEMPLE 화엄사 Hwaemoesa | 보살행의 꽃으로 장엄하다

PRACTICE 간경 The Study of the Texts | 한국불교의 수행법

CLEAR MIND 구독 · 후원문의 (02)2198-5152  
국내 | 30,000원(1년) · 국외 | \$48.00(1year) · 법보시 | 한구좌당 3만원

서울 중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TEL.(02)2198-5152 FAX.(02)2198-5153 clearminds@daum.net / cmind@naver.com

월간 다도 단행본 시리즈 제2탄

# 일본 다도의 마음

조용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다도의 마음』은 일본 다도 가문을 대표하는 우라센케(裏千家). 그 우라센케(裏千家)의 대종장(大宗匠)인 센겐시츠(千玄室)가 50년 이예모토(家元)를 지내며 느낀 다도와 일상, 그리고 그 정신세계를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엮은 책입니다.

센겐시츠(千玄室) 著 · 니야 스탄(野田宗淡) 解説 · 이노우에 다카오(井上隆雄) 監訳 · 박진영(朴鎭榮) 翻譯  
컬러 · 210×276 · 140페이지, 값 · 23,000원

구입문의: 월간 다도 (02)722-7777